

“한전 프로젝트 따라면 SPIN 이용하라”

(스마트 전력 사물인터넷 네트워크)

한전·정보통신기술협회 등 에너지 사물인터넷 발전 토론회 지역기업들 기술 표준 적용해 수익·일자리 창출 앞장서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대학·기업·공공기관이 광주·전남의 에너지 사물인터넷(IoT)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전력공사, 한전KDN, 한전KPS, 전력거래소가 집적된 혁신도시 일대를 ‘에너지 밸리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 육성하기 위한 움직임에 발맞춰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나주 한전 KDN 빛가람홀에서 세미나 ‘에너지 IoT/나주’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나주 거점 산업인 에너지 사물인터넷에 정보통신(ICT) 기술 융합을 촉진해 지역기업과 대학생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SW융합클러스터가 주관하고 동산대학교가 후원했다.

세미나에는 한전·전자부품연구원·ICT 산업진흥원·정보통신기술협회·정보통신시험인증연구소 등 에너지 관련 기관과 네오리플렉션·썬시스 등 기업, 순천대·동산대 교수 등 전문가가 나서 발표·토론을 이어갔다.

이날 오전부터 ▲에너지분야 IoT 사업 적용 사례 ▲표준 관점에서의 에너지IoT

기술 개요(한전 e-IoT 기술) ▲ICT 융합을 통한 에너지 기술 혁신 등을 주제로 발제가 진행된 뒤 ‘광주·전남 에너지 IoT에 대한 산·학·연·관 발전방향’을 주제로 한 토론이 펼쳐졌다. 이상근 동산대 교수 좌장으로 나선 이날 토론에는 조병록 순천대 교수, 정경권 동산대 교수, 박복길 ICT 산업진흥단 단장, 김재은 정보통신시험인증연구소 팀장, 김유빈 썬시스 이사가 에너지 사물인터넷 산업 강화를 위한 기술 개발, 인력 양성, 정부 지원 방법 등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토론 첫 순서를 맡은 조병록 교수는 광주·전남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한전의 ‘스마트 전력 사물인터넷 네트워크’(SPIN)와 연계한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데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전이 지난 2015년 구축한 SPIN은 기업·연구계가 함께하는 연구 동맹이자 개방형 산업생태계 플랫폼”이라며 “광주·전남 에너지 기업들이 전력 사물인터넷으로 기업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SPIN 활성화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지난 연말 전력 사물인터넷 표준을 채택했다”며 “현장 전력설비에 스마트센서를 설



광주·전남 에너지 사물인터넷 산업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에너지 IoT/나주’ 세미나가 4일 나주 한전KDN 빛가람홀에서 열렸다. <정보통신기술협회 제공>

치해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지면 전력설비에 대한 진단과 고장 예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세미나 참가자들은 광주·전남 기업들이 에너지 사물인터넷 표준을 적용해 수익과 일자리를 창출해 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서창수 네오리플렉션 대표는 통합단말장치, 변압기 감시 장치 등 표준 기술을 기반으로 한 장치 개발 방법을 소개하며 다양한 응용서비스 개발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대학의 역할도 강조했다.

최일 동산대 총장은 “내년까지 혁신도시에는 에너지·IT 관련 협력업체가 500곳 이상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관련 인력양성이 요구된다”며 “한전과 동산대 컨소시엄이 협력에 추진하고 있는 동산대 스마트 에너지 캠퍼스는 에너지 신기술을 연구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주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조선대학교 재학생 40명 혁신도시 이전기관 탐방

조선대학교 재학생 40명이 최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을 탐방했다.

이번 행사는 혁신도시 이전기관 맞춤형 지역 인재육성을 위해 조선대가 운영하고 있는 ‘골드클럽’ 프로그램의 하나로 진행됐다.

이날은 한국전력공사와 한전KPS 등 에너지 관련 기관 2곳의 시설을 방문했다. 참가자들은 기관 소개를 듣고 채용 관련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기관 인사담당 직원이나 나서 취업준비를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설명하기도 했다.

조선대는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법제화됨에 따라 재학생들의 취업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 프로그램 ‘골드클럽’ 선발 학생에게는 ▲취업 멘토링 ▲스터디 활동바·스터디실 ▲취업캠프 참여 기회 ▲취업학생처 취업지원 프로그램 신청 우선권 등을 지원한다. /백희준 기자 bhj@



“농식품 수출 우리가 도와요~” 재한 외국인과 광주·전남에 정착한 다문화가정 이주여성 150명이 참여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테이스트-K’ 37기 첫발을 내디뎠다. 이들은 최근 (주)팔도 나주 공장에서 발대식을 갖고 우리 농수산물 수출을 위한 번역, 컨설팅, 사업안 제안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aT 제공>

사학연금공단, 포용적 연금서비스 혁신워크숍 개최

사학연금교직원연금공단은 최근 빛가람혁신도시 본부 세미나실에서 ‘포용적 연금서비스 제공을 위한 혁신워크숍’을 열었다.

행사 참가자들은 ‘고객만족도(PCS)제고 방안’, ‘유치원 연금서비스권리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이날 연금사업본부 부서장과 담당자 등 40여명이 참여했다.

이중훈 공단 이사장은 “혁신 워크숍을 계기로 고객 요구에 충실한 포용적 연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학연금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가족과 함께 요리 만드니 즐거워요”



한전KDN, 요리교실 진행

한전KDN이 6월 매주 주말 직원 가족을 위한 요리교실(사진)을 연다.

한전KDN은 “직원 가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총 54팀의 직원 가족과 ‘온가족이 함께 쿠킹클래스’ 행사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강좌는 본사가 있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 이

주한 직원 가족과 떨어져 사는 가족을 위해 나주, 광주, 서울 등지에서 열린다.

지난 1일에는 직원 가족 21팀을 대상으로 나주와 광주, 서울에 있는 요리학원에서 강좌가 진행됐다. 이날 참가자들은 파스타, 쿠키 등을 만들며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전, ‘청렴문화 조성’ 청탁금지법 실천 다짐

국민권익위와 협약 체결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청탁금지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청탁 및 금품수수 없는 공기업 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철저한 준수와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한전 등 공기업은 민관기관 등으로부터의 부정청탁이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접대·향응을 받을 수 없다. 한전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협약 내용을 공유하고 협약준수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정희 한전 상임



이정희(왼쪽) 한전 상임감사위원과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한전 제공>

감사위원은 “청탁금지법의 철저한 준수를 통해 ‘청탁금지법 선도 공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한전, 대구 두류공원에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 준공

최대 8대 동시 충전 가능

한국전력(한전)은 “4일 대구 두류공원에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고 대구시와 에너지신사업 추진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두류공원에 설치된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는 최대 8대까지 동시 충전이 가능하다. 충전 시간은 기존 30분대에서 10분대로 단축했다.

이날 한전은 충전소 준공식을 열고

대구시와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에너지효율화 사업 및 스마트시티 구축사업을 협력하기로 협약(MOU)을 맺었다. 한전은 스마트시티 구축사업을 통해 대구시가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에 스마트빌딩 실증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우리나라 친환경 에너지 신사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광주역
엔씨백화점
광주역점
오리거리
아로마라이프
성요한병원
유동사거리

Aroma Life
아로마라이프
www.aroma-life.co.kr

FACE 메이크업만 하는 시대는 끝!
이제는 BODY 메이크 UP!
후려져 있는 살들을 제자리로 정돈 시켜 완벽한 몸매로!

가능성 속옷 장수기업
기능성 속옷의 명가

아모리온	아모리온 롱바디	아실리 바디슈트 슈에드	비비드아모르
브라+슈트+거들 4개국 특허 3년 일체형 슈트	브라+슈트+거들+래깅스 4개국 특허 4년 일체형 슈트	블랙은사 바디슈트의 은사 레이스 품평회 1등	러닝+팬츠 2년 일체형 남성용 슈트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

편안한 착용감
탄성GOOD! 흡발습 GOOD!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단면육각형 사용

실크프로테인아미노산기공
원적외선 기공

대리점·총판문의
1588-2219

본사 광주광역시 북구 경열로 235 V&G빌딩
서울사옥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28길 5
축복빌딩(도곡동 518-9)